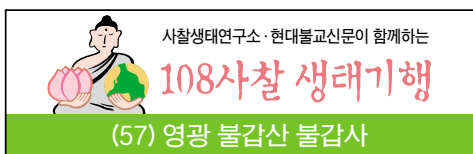


백제불교 전래 첫 절 ... 비자나무숲 일품



국내산 느티나무의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자연미가 살아있는 불갑사 일주문.



불갑산은 따뜻한 남도의 산이다. 호남정맥의 큰 산인 내장산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 하나가 남진해 내려오면서 방장산(733m)-문수산(620m)-고성산(546m)-태청산(593m)을 세운 뒤에 서해 바다가 굽어 보이는 곳에 솟구친 산이다. 높이는 516m에 불과하지만, 작은 몸집에 비해 역사의 무게와 생태적 깊이를 가진 산이다.

불갑산 불갑사(佛甲寺)는 백제불교의 초전법륜지교를 알려주었다. 백제 침류왕 때 인도스님 마라난타가 서해를 건너와 불교를 전하고 한산(지금의 서울)에다 절을 짓고 10명령 출가시켰다. 그 후, 자신이 첫 발을 내딛던 바닷가 가까운 곳에다 절을 세우고 '불교 전래 첫 절'이라는 의미로 '불갑사'를 창건했다고 후인들이 전한다.

요즘 불갑사는 중창 불사가 한창이다. 불사는 조선 중기인 1741년에 기록된 사적기를 근거로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불갑사 주차장에 내리면 두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가 서 있다. 지금은 사람들의 눈길도 받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불갑사의 중창주인 각진국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역사 속의 노거수이다. 그 중 큰 나무는

자연적으로 된 넓직한 쨍쨍까지 높고 오랜 동안 마을 당목으로 모셔왔는데, 지금도 굵기가 하나가 남진해 내려오면서 방장산(733m)-문수산(620m)-고성산(546m)-태청산(593m)을 세운 뒤에 서해 바다가 굽어 보이는 곳에 솟구친 산이다. 높이는 516m에 불과하지만, 작은 몸집에 비해 역사의 무게와 생태적 깊이를 가진 산이다.

그러나, 주변이 주차장과 도로로 개발되는 바람에 생육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목신(木神)에 대한 대접이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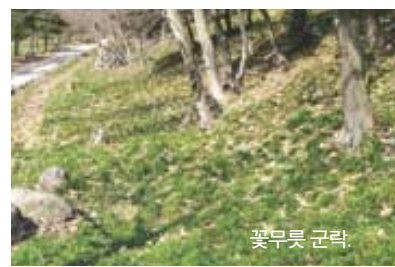
근래 세운 불갑사 일주문은 보기 드문 눈 맛을 보여준다. 요즘 일주문 불사는 대개 미국산 수입목을 쓰지만, 불갑사 일주문은 우리 땅에서 자란 느티나무로 기둥을 세웠다는 점에서 한번 더 바라보게 된다. 자연성을 그대로 살린 Y자형 느티나무 2개는 우람한 몸집도 그렇거니와 표면에 나타난 나뭇결이 오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사천왕상은 국내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상으로, 제작 연대는 조선 중기로 알려져 있고, 재질은 은행나무라고 한다. 은행나무는 '화두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불을 먹는 나무'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은행나무는 불에 강한 성질이 있어서 불이 나면 줄기에서 물을 뿜어 불을 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살아있는 은행나무 이야기이다.

보물 제380호인 대웅전은 다포를 놓은 팔작집으로, 앞면의 꽃살문이 화려하다. 단

청을 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고색은 없지만, 까치가 조각했다는 전설은 사뭇 애절하다. 대웅전의 포도나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좌우 옆면에 토벽이나 판벽이 아닌, 문장호를 낸 것이다. 삼존불 좌우 기둥에 두 마리 쥐가 조각되어 있다. 밤낮을 상징하는

중창 불사에 도립공원 개발공사 겹쳐 안팎 어수선 Y자형 느티나무 일주문 나뭇결의 오묘한 극치 자랑 꽃무릇 군락 위세에 경내의 다양한 초본류 사라져



꽃무릇 군락



비자나무 치수

흰쥐와 검은 쥐는 세월은 유수와 같으니 쉽없이 정진하라는 의미이다.

불갑산은 우리나라 식물생태에 있어서 의미가 큰 산이다. 난대림과 온대림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참식나무와 같은 일부 난대수종이 이 산에 이르러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북한계 숲을 만들어 놓고 있다.

숲은 자생 숲이기 때문이다.

생태학자들이 불갑산의 비자나무를 주목하는 이유는 씨앗이 떨어져 자연 발아한 어린 비자나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낙엽활엽수와 경쟁을 하며 후계림으로 성장해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천연 비자림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무환자(無患子)나무는 군락을 이루고 있

경내를 나오면 저수지와 동백골을 지나 해발암으로 가는 산행로가 나 있다. 굴이 산중을 헤집고 다니지 않아도 이 산행로 주변에서 다양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총 52과 186종이나 되는 나무들이 분포되어 있는 길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참식나무와 비자나무 등이 특징적으로 손꼽힌다.

참식나무 군락은 불갑사 뒷산과 뒷고개 계곡에 있다. 불갑산의 참식나무가 특별한 것은 이곳이 북한계이기 때문이다.

즉, 섬을 제외하고는 불갑사 위쪽으로는 자생하는 참식나무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불갑사 참식나무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여 있다.

신라 때 법명이 경윤이란 스님이 인도에 유학하고 있었다. 스님의 출중한 인품과 학덕에 반한 인도 공주가 짝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왕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자, 공주는 귀국하는 스님에게 내세의 인연을 기약하는 증표로 참식나무를 주었는데, 스님이 가지고 와서 절 주위에 심은 것이 퍼져 오늘날의 숲이 되었다 한다.

비자나무 역시 따뜻한 해풍을 좋아하는 난대성 나무이다. 절집에서는 백양사 비자나무숲이 유명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생태적 가치로는 그곳의 비자나무 숲 못지않다. 그것은 백양사의 숲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데 비해 이곳의 비자나무



노루귀, 변산바람꽃, 종의무릇(위부터).

지는 않지만, 불갑사 주위에 스님들이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그루의 무환자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인도에서는 무환자나무의 속껍질에 표면활성제가 들어 있어서 세제(洗劑)로 사용되었고, 중국에서는 도교(道敎) 사람들이 무환자나무 열매에 벽사의 힘이 있다고 즐겨 심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무환자나무의 까만 열매로 염주를 꿰면서 불교의 나무가 되었다.

불갑사는 바다가 가까워서 같은 위도 상에 있는 내륙의 어느 절보다 봄이 이른다. 봄이 이른 만큼 꽃들도 앞서 핀다. 눈 속에 피는 변산바람꽃, 노루귀, 종의무릇, 복수초 등을 비롯해 보춘화, 남산제비꽃, 평의바람꽃, 만주바람꽃, 현호색, 산자고, 고깔제비, 왜제비, 털팽이는 등이 이른 봄부터 꽃을 피워낸다.

인간의 간섭지대인 경내에는 광대나물, 흰민들레, 주름치마, 냉이꽃, 꽃다지 등이 주종을 이루며 꽃을 피우고 있다. 불갑사의 꽃을 이야기하면서 꽃무릇을 빼놓을 수는 없다. 불갑사는 고창 선운사와 함께 꽃무릇

으로 소문난 절집이다.

석산이라고도 하는 꽃무릇은 금어(金魚) 스님들이 탕화를 그릴 때 뿌리를 찢어서 탕화 곁에 바르면 색깔이 바래지 않는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사찰 주변에 많이 심었다.

꽃무릇은 불갑사 경내외는 물론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주변 곳곳에도 엄청난 면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당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몇 해에 걸쳐 폭력적(?)으로 심은 까닭이다. 그 바람에 불갑사 경내외 숲자락에 다양했던 초본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불갑사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절 입구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버린 드넓은 주차장과 벽돌 블록으로 바뀐 넓은 진입로, 자연성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들린 개울물, 그리고 드넓은 잔디와 함부로 심어진 외래수종... 마치 시민공원처럼 반(反)생태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蠟鑄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중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본사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 406-28 www.seungjongsong.co.kr / E-MAIL : seungjongsong@hotmail.com

대표 : 법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